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골머리' 앓는 지자체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광주시, 입지후보지 재공모 진행
순천시 '연향뜰' 부지 주민들 반발
광양·곡성, 입지선정방식 등 이견

오는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지역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자원회수를 위한 소각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한 광주시는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순천시 등 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때 신청한 입지후보지 6개소 모두 응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적합' 의결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응모자격을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했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 선교동, 서구 매월·

서창동, 남구 양과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연산동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지후보지 선정이 잠시 지연됐다고 해서 큰 틀에서 계획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재공모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남 도내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목포시(신안과 광역화)와 순천시(구례와 광역화),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등 총 5곳이다. 이중 산업단지 외곽 쪽에 입지를 선택한 목포시와 기존 부지에 재설치를 추진하는 보성군을 제외하고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등은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다.

순천시는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및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의 '연향뜰'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순천시는 이후 최종 입지선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국가정원 인근에 위치한 연향뜰에 소각장 부지를 확정할 것을 놓고 '밀실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순천 쓰레기소각장 일방 추진 반대 및 쓰레기행정 공론화 시민운동본부'가 꾸려졌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소각장 건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로 치닫는 모양새다.

민선 7기때 부지로 선정된 월등면이 민선 8기 들어 전면 백지화됐다가, 최근 연향뜰에 대한 재검토 요구까지 높아지면서 순천시의 소각장 건립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검토한 총 5곳의 후보지 중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이 연향뜰이었으며 관련 절차대로 예상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노병하·최황지 기자



광주시청 앞 크리스마스 스윙 점등식

형 그네가 설치돼 있다.

크리스마스 스윙 점등식이 30일 광주시청 행정동 빛고를 무지개 앞에서 열렸다. 아치형 구조물인 빛고를 무지개에 은하수를 형상화한 조명과 함께 대

나건호 기자

尹,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설·수석 전원 교체

3실장 5수석 '2기'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5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조직 개편과 인선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체제의 2기 대통령실이 새롭게 출범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인사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신설된 장관급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수석을 임명한

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전 KBS 앵커,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운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실장은 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해 "국정 현안의 통찰력과 정부 감각을 바탕으로 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 이끄는 데 중추 역할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언론인으로 축적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 전반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재직하던 언론인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해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이끌 적임자', 장상운 사회수석에 대해선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3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사람들 (576/1000)

김수관
상무수처과 원장

▶ 관련 기사 16면

전라남도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귀농·귀어·귀촌 1번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1577-1425

전남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구청년정책관실
서울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4층 1401호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

전남귀농산어촌 누리집 바로가기

전남귀농산어촌 카카오톡 상담하기

귀농TIME 유튜브 바로가기